

# 안내판·안전장치 등 없어 하차 ‘아찔’

### 시내버스·택시 연계교통 전무 화장실 불편 야간 범죄대상 우려... 시·구청은 ‘관할 핑퐁’



현장출동 1050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위험천만’

고속버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지역에 설치된 고속버스 간이정류소가 오히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아·운암 간이정류소에 안내표지판이나 안전시설물 없이 관행적으로 하차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이용객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운암동 간이정류소는 주변 교통혼잡까지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광주시와 관할구청은 정류소 관리가 자신들의 소관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후 1시께 광주 광산구 비아동에 있는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고속버스에서 내린 승객들이 주섬 주섬 짐을 들고 택시를 타기 위해 천천히 이동한다. 하지만 버스 하차지에서 택시정류소가 있는 곳까지 가려

면 긴 인도와 울퉁불퉁한 계단, 그리고 택시탑승까지 오랜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겨내야만 집으로 향할 수 있다.

인도 끝 계단 바로 아래에 위치한 화장실도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광산구청에서 매일 관리한다는 공중화장실은 막혀있거나 역류한 흔적을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고, 화장지도 비치하지 않았다.

김모씨(76·여)는 “고속버스에서 내려 택시승장까지 가는 길도 험한데 곳곳에 쓰레기가 있고, 화장실 이용도 너무 어렵다”면서 “아들이 데리러 나와서 다행이지 버스도 없고 택시를 타기까지도 너무 오래 걸려 이용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소연했다.

정모씨(31·여)는 “밤 늦은 시간에는 가로동도 켜져 있지 않고, 켜져 있더라도 밝지 않아 지금 당장 범죄가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면서 “관할구청에서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설물 관리나 시내버스 배차 등은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울분을 쏟아냈다.

문제는 비아 간이정류소 뿐만 아니라 비슷한 시각 광주의 대표적인 교



15일 오후 광산구 비아동에 위치한 고속버스 간이정류소 택시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오지 않는 택시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다.

동혼잡 지역인 운암동에 있는 간이정류소의 사정도 비아 못지않게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광주시내와 고속도로를 잇는 길목인 이곳 경유지는 왕복 8차선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평소에도 교통혼잡 지역으로 악명이 높다.

근근이 택시승강장과 시내버스 정류소가 위치해 있다. 하지만, 문화예술회관에서 공연이라도 있는 날이면 길가에 길게 늘어진 정차차량 때문에 고속버스가 3차선에 정차한 후 이용객들이 도로에 내리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해 있는 상황이다.

고모씨(57·여)는 “이 곳은 상습

교통정체지역이라 퇴근시간엔 거의 도로 한가운데서 내리는 정도”라면서 “고속버스가 정차하는 곳이라는 안내문구라도 걸어놓거나 최소한의 안전시설물이라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해당구청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곳이 아니라며 시민들의 안전위험을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시설물 관리는 각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안전시설물 설치 등은 구청에 문의해야 한다”며 “시는 하차전용 경유지 운영에 대한 업무를 각 구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일선 구청 관계자는 “구에서 관리

하는 것은 화장실 관리 정도일 뿐 다른 시설물은 관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토대로 시와 함께 운영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고속버스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간이정류소인 ‘하차전용경유지’를 북구 운암동과 광산구 비아동에 마련, 운영 중이다. 통상 고속버스는 시·도 터미널간 운행이 원칙이지만 터미널 이전 지정장소에서 한 차례 하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광주시와 관할구청이 협의해 허가·운영되고 있다.

/김종찬 기자

오늘의 날씨

장성	9~19	흑산도	15~19
담양	9~20	구례	9~19
화순	9~19	곡성	8~19
영광	10~19	완도	13~20
함평	11~21	강진	10~21
무안	11~19	장흥	10~20
영암	9~20	해남	9~20
진도	12~19	고흥	10~20
신안	13~20	보성	9~19

일출 06:39 일몰 17:57  
월출 13:08 일몰 23:22

목포	만조 06:20 19:15	여수	만조 00:33 13:42
	간조 11:29 --:--		간조 06:33 20:27

문의 : 광주기상청 지역번호 없이 131

## 6살·3살 자매 아파트 옥상서 ‘투척’ ‘골든타임 도착’ 광주 69%·전남 49%

### 주차 차량 3대 날벼락...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의 한 14층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돌맹이가 차량 3대를 파손,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광주경찰서는 옥상에서 돌맹이를 던져 차량을 파손 혐의(재물손괴)로 A(6)·B(3)양 자매를 입건했다.

이들 자매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45분께 광산구 쌍암동 14층 아파트 옥상에서 돌맹이 6개를 땅 아래로 던져 주차차량 3대를 파손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자매는 부모와 함께 정원으로 꾸며진 옥상에 올라갔

고, 어린이 주먹크기인 조경용 돌맹이를 건물 아래로 떨어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스럽게도 떨어진 돌에 의해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옥상에 머물고 있던 A양 자매를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자매들은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법적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며 “자매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지 수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윤영복 기자

### 소방차 진입불가 15곳·무인119 32곳 ‘전국 최다’

소방차 ‘골든타임 도착률’이 광주는 전국 평균 55.6%보다 높은 반면, 전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평화당 정인화 의원(광양·곡성·구례)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차 현장도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소방 5분내 현장도착은 1만2,368건으로 55.6%였지만 광주의 경우 298건 69.5%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4년 68.4%(전국 평균 61%), 2015년 73.6%(61.9%), 2016년 73.5%(58.8%), 지난해 70.8%(57%)를 기록했다.

반면, 전남소방의 경우 5분 이내 현장도착률이 지난 2014년 57.1%에서 2015년 60.3%로 상승했지만, 2016년 52.3%, 지난해 56.7%, 올해 6월 기준 49.1%까지 떨어졌다.

소방차의 현장 도착률이 해마다 떨어지는 이유로는 광주는 불법 주차차량 증가로 인해 출동로가 확보되지 못해서, 전남지역은 이동거리가 광주에 비해 긴 반면 근무인력 등이 부족해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소방은 전국 417개소 119지역대 중 유일하게 상주소방공무원이 1명도 없는 무인119지역대가 32개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전남은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농어촌·산간·도서 지역이 15곳으로 경북 13곳, 울산 10곳보다 많았다. 광주는 진입불가 지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강병운 기자

### 식사 중 80대 아버지에 흉기 휘둘러 경찰, 손속상해 혐의 아들 긴급체포

구례경찰서는 15일 저녁식사 도중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둘른 혐의(손속상해)로 A씨(52)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께 구례군 소재 아버지 B씨(85) 집에서 식사 도중 B씨가 자신이 좋아하는 고기반찬을 먹는다면 흉기로 옆구리 등을 찌른 혐의다. B씨는 순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나,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동부취재본부= 김진석 기자

### 영산강변 텐트서 부부 숨진 채 발견

쌀쌀해진 밤 기온에 텐트 안에 난방기구를 켜놓고 잠을 자던 장애인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오전 11시 51분께 북구 건국동 영산강변 한 다리 밑에 설치한 텐트 안에서 김모씨(65)와 아내 이모씨(58)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전부터 김씨 부부와 연락이 닿지 않던 친척이 이들 부부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 부부는 안에서 잠겨진 텐트 안에 누워 있었으며,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텐트 내부에서는 휴대용 부탄가스 작동하는 온수매트가 켜져 있었다. 담양에 사는 이들 부부는 한 달 전부터 같은 장소를 잇달아 방문하며 낚시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부부는 둘 다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한 장애가 있었고, 아내는 암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찬 기자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제2018-02호

### 정정공고(입찰공고)

본지 2018년 10월 10일자 9면에 게재된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제2018-01호에 건축설계, 상주관리 기초금액 표기 정정기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 다 음 -

가. 정정사유 : 건축설계, 상주관리 기초금액 표기 정정

나. 정정내용

- 1) 기초금액
  - 정정 전 : 11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정정 후 : 14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다. 입찰(개찰)일정 및 장소

구분	추진 일정	비고
입찰공고	2018.10.10(수)	기 공고(여수중부새마을금고 제2018-01호)
현장설명회	2018.10.17(수) 10:00	장 소 : 본 금고 본점 3층 회의실 구비서류 : 건축사 면허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참가자격 :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
입찰등록 일시	2018.10.18(목) 09:00 - 15:00	제출장소 : 본 금고 본점 영업지원팀 제출방법 : 방문제출(우편접수 불가) 현장설명회 참가업체에 한해 등록 가능
입찰(개찰) 일시	2018.10.22(월) 15:00	장 소 : 본 금고 본점 3층 회의실

라. 기타 사항은 기 공고된 내용과 같습니다.

2018. 10. 16

여수중부새마을금고 이사장

### 정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 062-720-1016, 1017  
☎ 062-720-1020  
✉ jnmi1000@hanmail.net

---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시사매거진

###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월간 전남매일  
구독문의 062) 720-1006

월 11일은 인구의 날

### 도와주는 아바에서 함께하는 아바로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불균형 개선  
전라남도 저출산극복 사회연대회의

전라남도  
인구보건복지협의회 광주전남지회

가 함께 합니다

### 오피스텔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38평, 사무실 전용
- ✓ 20층중 3층, 하천방향, 전체 울수리
- ✓ 대형주차장 완비, 무료 주차 3대
- ✓ 관리비 저렴, 즉시 입주
- ✓ 보 1천만, 월50만원 임대보증
- ✓ 시세 - 1억 1000만원
- ✓ 금매 - 8400만원

문의. 010-3605-5000